

# 성 유대절 베드로

# 청담동성당

강남구 삼성로 720 (홈페이지: www.cdssd.org)  
 사무실: 02)3447-0750~1 팩스: 02)3447-0752

주 임 신 부 : 김민수 (이냐시오)  
 부주임 신 부 : 심 욱 (베드로)  
 부주임 신 부 : 방종우 (야고보)  
 전 교 수 녀 : 박정숙 (아그리피나)  
 좌희선 (보노사)  
 이새롬 (엘카나)  
 사 목 회 장 : 손영모 (가브리엘)  
 연 령 회 장 : ☎ 010-7186-7222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3시(어린이 미사),	오후 7시
	일요일	오전 6시, 9시, 11시(교중미사),	오후 3시(중·고등부), 5시(청년), 7시(일반)
평일미사	월요일 / 토요일	오전 6시	고 해 성 사
	화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주 일 미사 전 30분
	수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평 일 미사 전 15분
	목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병자 영성체
	금요일	오전 6시, 10시, 오후 7시	유 아 세 례
			매 달 둘째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출수 달 첫째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매 달 둘째주 토요일 오후 5시

2020년 7월 본당 추천 도서

**뜨거운 마음으로**  
 (글쓴이: 헨리 나웬 / 출판사: 분도출판사)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다 되돌아온 이야기로 상실·현존·환대·일치·사명에 관해 말하고 있으므로, 성찬례의 다섯가지 주요 측면이 담겨 있는 것이다.

판매가: 4,000원

- 임산부 축복식: 7월 5일(오늘) 교중미사 중
- 수요일 재개: 7월 8일(수) 오전 10시미사 후
- 병자영성체: 7월 9일(목) 오전 10시미사 후

○ 초등부, 중·고등부 미사 재개

미사 재개 일시		장소
초등부	7월 4일(토) 오후 3시~	2층
중·고등부	7월 5일(주일) 오후 3시~	대성전

- 주일학교 학생들 역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시행 할 예정입니다.
- 미사 전 마스크 착용, 출입기록 작성, 발열체크, 손 세정제 사용하며, **당분간 교리일정은 없습니다.**
- 상황에 따라 상기 내용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남성 레지오 전단원 일일피정 (2층 대성전)

- 일시: 7월 5일(오늘) 오후 1시 ~ 오후 2시 30분
- 문의: 장 사도요한(010-6285-6627)

○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종교 지침

-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시는 일반 접촉자 분들은 감염 여부가 확인 될 때까지 성당 출입을 자제하시고 자기격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열 증상이 있을 시** 미사에 참석하지 마시고, 집에서 평화방송 미사,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미사참례 의무를 대신합니다.

미사 참례시 지켜야 할 사항

① 마스크 착용 필수 → ② 체온 측정 →  
 ③ 바코드 제출 혹은 출입기록 작성 →  
 ④ 손 세정제 사용 → ⑤ 사회적 거리 두기  
 ※ 사용한 주보는 반드시 가지고 가세요!

○ 출입 기록 작성 → '개인 바코드' 제출

-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예방 관리 차원에서 신자 바코드가 인쇄 된 용지 1장(A4, 1인 27매)를 사무실에서 배부합니다. 이는 본당 교우분들의 안전과 편리, 환경보호를 위해 기존에 번거롭던 출입기록 작성에서 바코드 제출로 간소화합니다.

☞ 미사에 오실 때 **바코드 1매씩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출입기록지를 가지고 계시면 당분간 병행해서 쓰셔도 됩니다.

☞ 타본당 신자분들께서는 교적본당에서 바코드를 받아서 제출하시거나 출입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예비신자분들은 기존대로 출입기록 용지를 작성합니다.

- 바코드 출력으로 성당 사무실이 혼잡 할 수 있사오니 조금 늦더라도 많은 양해 바랍니다.

○ 단체활동과 모임 안내

- 현재 코로나 19로 교리실 사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1. **교리실을 사용하실 단체는 사전에 반드시 성당 사무실로 '회합실 사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 참석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및 거리두기
  - 의심 증상이 있으면 성당에 오지 않기

○ 여성 레지오 '찬송하올 모후 Pr.' 창단

- 일시: 7월 10일(금) 오전 9시, 1층 프란치스코 홀

○ 여름철 미사 참례 복장과 자세

-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미사 참례 시 슬리퍼, 반바지, 민소매 옷은 피하고 전례 때 이유없이 성당 내에서 선글라스,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 기도서, 주보 등으로 부채질하는 행동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는 늘 착용합니다.

○ 여름철 휴가지 성당안내

- 7월 매일미사책 173p 참조 혹은 천주교 어플리케이션 '굿뉴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성가번호 입 당: 283      예물준비: 289, 342      성 체: 344, 504      파 견: 287

화 답 송

주 님 - 제 목 숨 -      당 신 손 에 맡 기 나 이 다



**주임 신부의 독서 사목 이야기 (129)**

**「뜨거운 마음으로」 (1)\_상실의 고통**

우리의 삶은 상실의 연속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신체적 상실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출생 때 안전한 자궁을 잃었던 최초의 상실에서부터 입학, 취직, 결혼 등으로 자유와 가능성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 또한 나이 들면서 약해지고 병들어가는 신체적 상실에다가 죽을 때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는 노래 가사 중에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하는 내용은 사별의 아픔, 반쪽의 상실이라는 고통을 노래하고 있어 더욱 애처롭게 다가온다. 그러나 이 모든 신체적 상실은 평범한 삶의 일부다.

어두운 기억과 추억으로 남는 상실은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 폭력으로 안전을, 무절제로 무구성을, 배신으로 친구를, 버림으로 사랑을, 전쟁으로 고향을, 질병이나 사고로 자녀를, 정치적 격변으로 나라를, 지진과 홍수와 코로나19로 생명을 잃은 이 같은 ‘어두운 상실’은 인간의 꿈을 산산조각 나게 했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상실감은 오랫동안 내면에 은밀하게 숨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상실의 바탕에는 ‘믿음의 상실’ - 곧 우리 삶에 의미가 있다는 확신의 상실 - 이 존재한다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한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상실은 곳곳이 견뎌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 오랜 세월 우리가 실천해왔던 전례 생활 관습들이 더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기도, 미사, 성사, 공동체 생활, 하느님의 현존 등에 아무런 의심 없이 고수했던 것들이고, 이러한 신앙 안에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친한 벗이고 조연자, 인도자이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신념을 주신 분이신데, 지금은 별로 그분을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자신이 알고 믿어왔던 주님이 어느 때부터인가 낯선이가 되어 그분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음을 슬퍼한다. 하느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현실, 예수님이 낯선이로 받아들이는 현실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반응했던 모습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이로 대한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많은 상실로 부서진 마음을 안고 미사에 참석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마태 5,4)라고 말씀하신다. 감당할 수 없는 상실로 인해 환멸과 분노와 쓰라림을 느끼는 슬퍼하는 이들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변화시키게 한다. 상실에 대한 슬픔으로서의 반응은 주님께 자비를 구하게 된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것은 하느님 백성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외침이다. “통회하는 마음은 남을 탓하지 않고 세상의 죄많은 자신의 몫도 인정하며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를 받을 차비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다.”(31쪽)

“어느 명사가 말라서 굳어버린 흙에 물을 쏟아 부으며 말했다. ‘보십시오. 흙이 물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아무 씨도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손으로 흙을 부순 다음 다시 물을 붓고 말했다. ‘부서진 흙만이 물을 받아들이고 씨가 자라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31-32쪽) 저자는 이 이야기를 소개하며 미사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다고 한다. 미사는 부서진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2020. 07. 05 청담동 성당 주임신부 김민수 이나시오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봉헌 예물		감사 헌금 (06/24~06/30)			
연중 제 13주일	6,779,200원	김 비비안나	100,000원	윤 스테파노	2,000,000원
교황주일 2차	4,417,000원	조 안토니오	500,000원	김 요셉	300,000원
교무금	35,965,000원	김 안젤라	120,000원	윤 아녜스	50,000원
성소후원금 (7건)	270,000원	정 미카엘라	200,000원	이 필립	100,000원
<b>교무금 납부 현황</b>		윤 세실리아	50,000원	김 요한	100,000원
총 세대수	2,708세대	이 테레사	50,000원		
총 납부세대	1,063세대				
지난 주 납부세대	37세대				
총 납부율 (%)	39.3%	<b>합계:3,570,000원</b>			